

3월 29일(월) / 신 31-34

▶ **내용요약** :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일곱 번째 해 초막절마다 율법을 낭독하도록 명령하였다.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 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권면했다. 33장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3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느보 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에 숨을 거두었다.

▶ **질문** :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인가? (31장)

▶ **생각하기** :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걸음을 멈추었다. 그토록 갈망했던 약속의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던 것이다.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분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나아가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신 그곳에서 멈추는 우리가 되도록 지혜를 구하자.

4월 1일(목) / 수 7-9

▶ **내용요약** :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훔쳐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은 곧이어 아이 성을 공격했다. 사실 아이는 여리고 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고 말았다. 8장에는 아간의 처형 이후 아이 성을 다시 공격하여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아이 성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는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9장에는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위장한 기브온의 사신들과 조약을 맺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진멸할 수 없었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 함께 거주해야 했다.

▶ **질문** : 여호수아를 속이고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들은? (9장)

▶ **생각하기** : 승리에 취해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가나안 지역의 주민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자.

4월 4일(일) / 삭 4-6

▶ **내용요약** : 사사기 4장에서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야빈 왕의 군대장관인 시스라를 공격하게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고, 도망치던 시스라는 한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했다.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3월 30일(화) / 수 1-3

▶ **내용요약** :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지시하셨다. 또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행하라고 교훈하시고 동시에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한편 2장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다. 여리고에 도착한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였는데, 라합의 도움을 받아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선두에 섰는데, 그들의 발이 잠기자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갔다.

▶ **질문** : 정탐꾼을 도왔던 기생의 이름은 무엇인가? (2장)

▶ **생각하기** :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라합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어보라). 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자.

4월 2일(금) / 수 22-24

▶ **내용요약** : 여호수아 22장에는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의 지파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일찍이 영토를 분배받았지만, 가나안 땅 정복에 끝까지 함께함으로써 다른 지파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했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다. 23장에는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를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선언하였다. 그렇게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백십 세에 세상을 떠났다.

▶ **질문** :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요단 가에 세운 것은 무엇인가? (22장)

▶ **생각하기** :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상기시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

땅이 평온하였다. 6장에서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였고, 이스라엘은 심한 고통 속에서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시고 부르셨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알의 제단과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또한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대적들과 싸울 준비를 하였다.

3월 31일(수) / 수 4-6

▶ **내용요약** :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요단을 건넜다. 이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고, 그들이 육지를 밟음과 동시에 요단 물이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였고, 그 후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한편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군대장관과 마주쳤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돈 후에 나팔과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여리고성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 **질문** : 7일 동안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는가? (6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때로 높은 성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기억하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보다 강한 상대는 없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자.

4월 3일(토) / 삭 1-3

▶ **내용요약** :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포함한 사사 시대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1장에서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가나안 지역 전투와 승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에 2장에서는 여호와와 사사가 보김에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었고, 이스라엘은 회개하듯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더욱 악을 행하여 바알 신을 숭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허락하지 않으셨다. 3장부터는 우상 숭배로 인해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웃니엘, 에훗, 삼갈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 **질문** : 여호와와 사사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꾸짖은 곳은? (2장)

▶ **생각하기** : 이스라엘의 싸움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기억하자. 그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자.

▶ **질문** :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활약했던 여성의 이름은? (4장)

▶ **생각하기** :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범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택하신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건지셨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